

매화저고리에 보리치마 사이 거니는 스님은 '학'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 (상)

梅花本皚然 매화는 본디 환한데
映月疑成水 달빛이 비쳐 물결 같구나.
霜雪助素艷 서리 눈에 흰 살결 곱게 드러나
清寒徹人髓 맑고 차가움이 뼈에 스민다.
對此洗靈臺 마주보며 마음 맑히니
今宵無點滓 이 밤 찌꺼기 하나 없네.
- '梅梢明月, 매화가지에 걸린 밝은 달' 율곡 이이

“매화나무 밑에 보리를 심었어요. 파릇파릇한 보리치마쪽에 송골송골 맺힌 이슬 위로 하얀 매화꽃잎이 날려서 곱다라니 왕관을 씌워요. 하얀 매화저고리와 파란 보리치마 사이를 하얀 티셔츠 차림으로 거니는 법정 스님은 그대로 '학'이었어요.” 마치 선화 한 폭을 본 느낌이다. 스님을 돌아보는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70)의 애뜻한 눈매가 달빛 받은 매화 같다.

악이 되는 밥상을 찾아 셀 수 없이 해외나들이를 한 홍쌍리 선생. 우리나라 혹은 밖으로 산천초목이 반찬이며 산에 흐르는 물이 송능이란다. “우리나라 같이 산에서 도라지나 더덕뿌리를 쭉 뽑아 바짓가랑이에 쓱쓱 문질러 흙이 반이나 묻은 채로 그냥 먹어도 탈이 없는 곳이 없어요. 맵고 짜고 쓰고 짬고 신 오미오색五味五色이 산에 다 있어서 된장 한 가지만 달랑 들고 가서 나물들을 뜯어 씻지 않고 썬 썬 따먹어도 탈이 없고, 철철 흐르는 개울물을 손으로 떠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 데가 우리나라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실나무를 관광용으로 썼지, 먹을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이 66년도에 처음, 매실을 먹을거리로 만들었다. 시아버지한테서 매실농축액, 매실술, 매실김치 담그는 법을 이어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네 사람이 배가 아프다거나 울라오면, 아버지는 일년 물부터 끓이래요. 파근파근한 물에다가 매실농축액을 풀어서 먹이면, 많이 체한 사람은 토해요. 두 번 먹어서 토하고 나면 세 번째는 토하지 않아요. 그런 뒤에 오뉴월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으라고 해요. ‘더워 죽겠다는데 웬 이불을 덮어놓습니까?’ 물으면 ‘출뎀지 기분이 나쁠 때는 꼭꼭 씹어 먹어도 없단다. 그러나 날이 풀려나면 지 기분이 좋을 때는 설렁설렁 씹어 먹어도 잘 없지 않는다. 한 번 보래. 동네 제사가 언제인가. 거의 다 겨울이다. 탁한 피가 얼면 죽음이야. 늦가을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아픈 사람이 많다. 탁한 피가 추워서 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쌀이 귀해서 보리식혜가 겨울 감기약이예요. 더 좋은 것은 밤이나 대추나 파뿌리나 생강이나 팔을 푹 삶아서 찹쌀 한 주먹 넣고 죽을 쑤어서, 매실농축액 먹이고 난 뒤에 먹어요. 그러곤 또 이불로 쳐 덮어 놔둬요. 따신 것은 몸을 데워주고 매실은 소화를 시키니까. 아버지가 산꼭대기 의사입니



홍쌍리 선생은 배 아픈 동네사람에게 매실을 먹이라고해 '산꼭대기 의사'라 불리던 시아버지의 처방을 보고 밤나무가 자라던 뒷산에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흙이 밥, 산천초목이 반찬 산에 흐르는 물이 송능이어서 마셔도 탈나지 않는 나라

다.” 겨우 살아내기에 겨울이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선생은 시아버지를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선생이 처음에 시집왔을 땐 둘째 45만평이 다 시택 땅이었다. 시집은 이듬해 66년, 스물네 살 먹은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밤나무를 베어내고 매화나무를 심자고 했다. “아버지 잔해 벚꽃은 4월에 피는데요. 여긴 2월 매조 아닙니까? 꽃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나무에 약간 하면 되는데 돈도 되지 않는 매화나무를 심는다니까. 매실은 아무도 주워 먹지 않고, 사가는 사람도 없다. 굶어죽으려고 그러하면서 저 많은 일꾼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역정을 냈다. 며느리는 끈질겼다. 시아버지 모르게 밤나무를 베다가 들키기도 여러 번.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야단을 칠 수도 때릴 수도 없

어서 그냥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었다. “아버지를 붙들고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게요. 아버지 대를 잘 이을 게요. 지켜봐주세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머리도 감겨 드리고, 세수도 시켜드리고 손발도 씻겨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매화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선생 눈물을 밥인양 먹고 자랐다. 눈이 내려 매화나무에 소복이 쌓이면 사람들은 설중매라고 모두 탄성을 지른다. 그러나 선생은 그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얗게 지새웠다. “방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딸내미는 손 시리고 발 시려 죽겠는데, 엄마, 나는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 덮고 자냐?’ 그럴까봐 애가 쓰여 죽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매화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입김을 ‘호호’ 쐬면, 눈 녹은 물하고 내 눈물이 매화꽃 가슴이랑 내 가슴을 다 적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지들끼리 ‘애들아, 이 강풍에 우리가 떨어져 죽어서 내년 봄에 엄마 못 만나게 되면, 우리 엄마 흰머리가 더 나고 주름이 더 깊어져서 엄마 얼굴 못 알아보면 어쩔까고. 그러니까 눈 감고 입 꼭 닫아. 절대 떨어져 죽으면 안 돼.’ 아들딸들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

꽃천지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마음 찌꺼기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 만들어보라

이 젖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 같이 잘 보듬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밤나무를 베고 매화나무를 심으려 드니까, 내를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대통령훈장 받은 사람도 우리 집뿐이래요. 아직까지는.”

섬진강가 돌맹이 보석을 베개를 삼고, 새벽안개를 요와 이불삼아 자고 일어나는 이 여인보다 더 행복한 여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홍쌍리 선생도, 이 찬란한 아침을 맞기까지 폭풍우 몰아치는 혹독한 시련을 넘어서야만 했다. 경기도 수원 밑에서 광산을 차린 부군이, 69년부터 4년 동안 45만평에 이르는 땅던 재산을 다 털어 없앴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빚은 이자가 45에서 50프로, 농협돈은 35프로였어요. 살

수가 없는 기라에, 날마다 쥐어뜯겨 싸서.” 하도 머리채를 쥐어뜯기다보니 나중에는 빗쟁이들이 쥐어뜯을 머리카락도 없을 지경이었다. “국산 옷은 확 잡아당기면 잘 뜯겨 싸서, 철없이 미제 스모루바지(미군 스포츠사이즈 바지)를 일컫는다. 다른 치수는 너무 커서 줄여 입기도 어려웠기에)에 아전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45만평이 빛에 다 넘어가고, 요 뒤 약산만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빚진 사람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하루는 선생이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하 웃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빚진 놈이 뭐 좋다고 웃느냐고 울러댔다. 한 번은 울다가 들켰다. 이번엔 어떻게 청승을 떠니까 집구석이 그리워 게 아니냐며 끝끝 허를 찼다. 그 뒤로 입을 단았다. 잘 살 때 시아버지가 지관을 데려다가 밧자리를 보고 허모를 써놓고 별초를 하곤 했다. 선생은 시아버지에게 묘를 절대 여기다 쓰지 않겠다고 했다. “누그 좋으라고 그러지”라는 시아버지에게 “아무리 좋아도 난 못 읍니다. 아버지 묘는 집 옆에 씩니다. 병든 아버지 아들한테 이런저런 힘든 소리를 할 것 입니까? 아버지 손자한테 할 것 입니까? 내는 대낮에 아버지 산소 앞에 엎드려서 울지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집 옆에

불기 2556년 환기 4345년 서기 2012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壬辰年 임진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원히 볼 수 있는 래정미법!

壬辰年 핵심래정택일지 (포켓용)

4x6배판 / 칼라제본 / 456쪽 / 정가 20,000원
문고판 (포켓용) / 칼라제본 / 456쪽 / 정가 10,000원

著者 白超 백초스님

임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뵈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㉔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㉕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임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법정 스님과 홍쌍리 선생. 스님은 37년 전 선생에게 가파른 산비탈에 매화를 심어 꽃전지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선생의 거절에도 스님은 거듭 매화심기를 청했다.

모시고 저녁 열시가 넘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고 했다. "돌아가신 뒤에 너무 힘이 들 때, 아버지 산소에 앉아서 용기를 달라고 실컷 울고 나면 흠이 이르는 것 같아요. '새해야. 울고프면 맘껏 울어뿌라. 내 넓은 가슴으로. 니 눈물 콧물 다 받아서 매화나무 목마를 때 줄게.'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 37년 전 일이다. "법정 스님이 인자하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깔 있는 분이세요. 나는 매화나무를 산 밑에만 심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저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매화를 심어서 꽃전지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못해요.'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러세요. '그래도 난 못해요.' 그랬지요. 빈 몸으로 다녀도 힘든 곳이거든요. 얼마나 경사가 젖던가. 떨어진 밤이 골짜기로 다 모여서, 따로 주우려 갈 필요 없이 소쿠리에 쓸어 담을 만큼 가파른 곳인데, 거기다 매화나무를 심을라 카면. 아휴, 그래서 '빈 몸으로도 못 다니는데 거기다 심으면 매실을 딸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팔라서 매실은 못 따니까 꽃전지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마음 찌꺼기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전국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거듭 말씀을 하세요. 스님은 오시면 그냥 앉아서 얘기나 나누고 가시는 성질이 아닙니다. 자꾸 같이 땀기 재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지만 스님을 아버지마냥으로 홀래홀래 따라다녔어요. '따스기로 진정 아버지보다 낫네.' 그러면서, 일 년에 서너 번, 두 번은 꼭 오셨어요. 꽃이 한 송이씩 필 때면 말씀 안 드려도 오세요. 그리고 꽃이 만개가 되어 바람에 휘날려 떨어질 때도 우찌 그리도 잘 아시는지. 꼭 땀뭉치 오셨어요. 그날 스님 따라 모두 둘러보고는 '스님 내 할 게요.'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봄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들어 꽃구경을 하는 이곳은 그렇게 봄이 됐다.

"정채봉이 하고 동기간처럼 지낸 지가 30년 다 되

나무를 꼭 베어야 하면 스님과 상의하라 당부

낙엽이 많이 모이는 곳은 창고 아닌가 기계소리가 나니 공장을 옮기지 마라

여요. 채봉이도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나도 스님을 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돌아보니, 세 사람이 다 엄마를 일찍 잃었더라고요. 나는 촌놈이라 채봉이 글을 못 따라가지만, 발바닥만큼은 따라가더라고요. 스님은 글을 아주 잘 쓰시고요. 우리 형제들이 문장력이 참 좋았어요. 40년대 말 밀양에 대학생이 네 명밖에 없었는데 때였는데 삼촌이 대학을 가고 오빠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팔남매 가운데 유독시리 나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아야 입 열여 나오는 말이 곧 시요. 노래다.

"이름을 지으러 갔더니, 작명장이 당신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이 사주를 가진) 사내애를 낳지 않고 계집애를 낳았나. 애는 글을 가르치지 말고, 기를 못 피우게 놀려 키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상의相義라고 지어 줬다. 그런데 호적계에서 그만 두 쌍쌍에 다스릴 이빨자를 써서 쌍리雙理라고 올렸나. 뒤에 그 사실을 알고도 가시내니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홍쌍리정매 살농원'이라고 하니가 홍쌍리에 있는 정매살농원을 가리킨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선생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다. 쌍쌍자는 돌이라는 뜻이지만, 발(田)을 가리키기도 한다. 너른 흙을 다스리는 선생에게 같았는 이름이다. 작명가가 지어준 이름 또한 넓은 홍쌍리로 상상에 옳을 의의자이니. 넓은 세상에 의롭고 선량하게 어우러져야 어울려 살라는 뜻을 지녀 이 이름도 홍쌍리 선생(70) 삶과 잘 어울린다.

"산을 까서 이 집을 지을 때 스님들이 다섯 분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 손에 밭 가시 하나 찢러도 너무 아픈데, 포클레인으로 땅을 팔 때 지신地神님이 얼마나 아플까. 죽겠어요. 길을 낼 때도 날마다 '흠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내 노래예요.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내가 좀 이해를 해라. 용서를 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홍쌍리 선생(70) 말씀에 김상사를 일곱 때, 나무를 꼭 베어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당신과 먼저 상의를 하고, 나무한테 베어야 하는 사연을 말하고 용서를 빌고 나서 베라고 했던 법정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스님은 마음에 들게 해놓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들게 해놓으면 마구 야단을 치세요.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선생이 공장을 옮기려 할 때 스님이 오셨다. 스님에게 공장터를 보여드리면서 공장을 이리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낙엽이 어디에 많이 모이냐고 물었다. 지금 서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려니 "그러면 창고 아닌가?" 하고 말씀하고는 내가 어디 가서 별을 놓고 봐 주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여긴 창고라면서 공장 있던 자리 가보라고 했다. 공장 자리에 가본 스님은 기계는 이미 뜯어 새 공장터로 옮겨놓았는데도 "이곳은 기계소리가 나지 않나. 절대로 공장을 옮기지 마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자리매김 해주신 스님은 뒷산을 가리키면서 '좌청룡 우백호에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턱이 없다'며 입맛을 다시며 혼잣말 하듯이 말씀을 던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한번 물어 볼 법도 한데, 물질 않았어요. 그 뒤로도 오실 때마다 가끔 그러셨어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백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너 어디 가니

비단 새해 벽두라서 지리 바쁜 것만은 아니다. 언제 보아도 행인들의 모습은 분주하다. 아마 사업·직장일·여행·지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다.

선(禪)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절이 있었는데, 양 쪽 절에는 오랫동안 수행한 큰 스님들이 있었다. 그런데 서로를 적대시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상대편 절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엄히 단속했다. 두 절의 스님들에게 시자가 있어 이런저런 심부름을 했다. 한 쪽 절의 스님은 시자에게 늘 말했다.

"저쪽 절의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말아라. 모두 위험한 인물들이니라."

그러나 아이는 아이였다. 어느 날 두 시자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저쪽 절의 시자가 말을 걸었다.

"너 어디 가니?"

그러자 상대절의 시자가 대답했다.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크나큰 뜻이 담겨 있는 말이고, 참도가 담긴 말이었다.

대답이 이러하자 질문을 한 시자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화가 치솟았다.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아, 스승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겪어 보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데 과연 이런 말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공장 시자는 스승에게 달려가서 방금 전의 일을 고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저쪽 절의 시자와 말을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인사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장에 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도 시장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이 말을 듣고 스승은 말했다.

"그토록 경고를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자, 명심해라. 내일 그 길에 서 있다가 그 시자를 만나면 똑같이 물어라. '어디 가니?' 그 시자가 '바람이 데리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이라고 말하면 너도 약간 철학적인 말을 하면 된다. '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해라.

시자는 신이나 그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너 어디가니?" 그리고 같은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상대편 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응, 시장에 야채 사러가."

이럴 때 그 시자가 배웠던 철학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인생은 이와 같다. 삶에 무슨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경이롭다. 대비할 수 없는 인생이란 무기력하다는 것만은 아니다. 대비할 수 없는 삶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쓸 수 있는 수중에 쓴 시간이다.

새해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다. 사람마다 진짜를 받고자 하지만 그 진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진짜는 이미 내 안에 있으며 진짜를 가지고 있는 가짜를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속 진불眞佛 뒷전에 두고

어디를 향해 분주히 가나

대단치 않은 잠방이 소중히 말고

'진짜' 가린 가짜 벗겨내야

마음 속 부처님이 진불(眞佛)이다. 마음속의 진불을 뒷전에 두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분주히 걷고 있는가. 그리 대단치 않은 얻은 잠방이를 소중히 여기는 주변 사람을 보고 싶노라면 부질없어 보인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 눈물샘은 감수성의 출구다. 눈물샘이 굳지 않은 사람의 눈은 반짝인다. 영롱하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눈을 보아라. 그런데 성장하면서 거짓 인격이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어느 결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동심을 잃는 것이다. 거짓 인격이 더 오래 머무르면 그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빨리 잃을 수록 더 좋다.

금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어디 가니?"라고 물으면, "응, 진불 찾으러"라고 통쾌하게 말하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리"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열입,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실전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허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분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연분삼교신문화